

마침내 K리그 봄이 온다...5월 8일 개막

전주에서 무관중 경기로
올 시즌 27라운드로 축소
경기 일정 빠르면 오늘 발표

K리그가 5월 8일 봄을 맞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24일 제3차 이사회<사진>를 열고 2020시즌 개막 날짜를 5월 8일로 확정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와 ‘FA컵 우승팀’ 수원 삼성이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나 K리그 2020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8일 공식 개막전과 함께 9·10일 개막라운드 경기가 진행된다.

자세한 경기 일자와 대진은 빠르면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리그 초반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유관중 전환은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시점과 방식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예정됐던 2월 29일보다 두 달여 늦게 리그가 시작되면서, 경기 수는 축소됐다. 지난해 38라운드 대결을 벌였던 K리그는 올 시즌 27라운드 대결로 순위를 가린다.

K리그1은 정규라운드 2라운드 로빈(총 22경기) 방식으로 순위를 가린 뒤, 상위 6개팀(파이널

A)과 하위 6개팀(파이널B)이 각각 파이널라운드 5경기를 치른다.

K리그2는 10개팀이 정규라운드 3라운드로빈(총 27경기) 방식으로 맞붙는다.

홀수 라운드로 진행되는 탓에 구단별 홈-원정 경기 수가 불일치하게 되면서 K리그1은 정규라운드 성적, K리그2는 지난주에 진행된 추첨 결과로 홈 경기 횟수를 정한다.

K리그1은 우선 정규라운드까지 홈경기 11회, 원정경기 11회를 동일하게 치른다.

이후 파이널라운드 5경기는 정규리그 성적에 따라 파이널 A 상위권 3팀(1~3위), 파이널B의 상위권 3팀(7~9위)이 안방에서 3경기(원정 2경기)를 갖는다.

K리그2는 추첨을 통해 5개팀이 홈경기 14회(원정 13회)를 치르도록 했다. 추첨 결과 전남드래곤즈는 올 시즌 안방에서 14경기를 소화한다.

선수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감염자의 소속팀은 최소 2주간 경기를 갖지 않고, 해당팀 경기는 연기된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증상 발생 시점 전후로 감염자의 소속팀과 경기를 치른 팀들의 경기도 최소 2주간 연기된다.

경기 당일엔 선수나 코치진, 심판 등 필수 경기 참여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해당 경기는 즉시 중지된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가



나오면 명단에서 제외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리그 진행이 어려울 때는 리그가 중단된다. 리그 재개가 불가능할 때는 리그를 종료한다.

K리그1은 22라운드까지, K리그2는 18라운드까지 경기가 진행된 이후에 리그가 종료되면 정상적인 리그 성립으로 여겨 우승팀과 순위, 수상,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등을 모두 인정한다.

리그 종료가 결정된 시점에 각 팀 간 경기수가 다

르면, 모든 팀이 동일한 경기수를 치른 마지막 라운드의 종료 시점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K리그1 22라운드, K리그2 18라운드까지 치르지 못한 채 리그가 종료되면 우승팀과 순위 등은 가리지 않는다.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추후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리그가 성립하지 못하더라도 팀과 개인 경기기록은 모두 인정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체육 경쟁력 키우기 혁신·변화 박차 2022년 목표 전국체전 성공 개최 힘모아

김재무 전남체육회장 취임 100일

‘변화와 희망’

전남체육회 ‘김재무호’ 출범 100일을 앞둔다. 전국 체육회에서 가장 먼저 회장으로 선출된 김재무 회장이 지난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전남체육회는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체육행정 선진화 ▲체육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 ▲법인화 추진 ▲지도자 처우개선 ▲스포츠마케팅 및 윤리강화 등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전담기구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체육인 복지·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천연한방병원과 손잡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체육인 사기를 북돋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자 처우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재무호 출범 이래 전남체육은 도약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전남체육은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비롯 모두 14개 메달을 획득, 종합순위 10위(종합점수 266점)에 올랐다. 전남체육회는 오는 10월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를 겨냥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목표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전남체육회는 향후 공공·행정기관 직장팀 창단 추진과 ‘도민 1인 1운동 갖기’ 정착을 바탕으로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 및 대회 지원,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스포츠클럽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체육회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체육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선제적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이 전남도 대표 우슈팀을 방문해 격려한 뒤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대응태세를 구축, 운영했으며 전남체육인 350여명이 국가적 혈액 수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헌혈 봉사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앞장섰다.

김재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현장의 발

이 묶여 아쉽지만, 더욱 철저하게 내실을 다져 전남체육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단기·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전남체육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004섬 신안 국제시니어바둑대회 9월 개최

한·중·일·대만 4개국 16명 출전

세계 4개국 시니어 기사들이 승부를 겨루는 ‘1004섬 신안 국제시니어바둑대회’가 9월에 열린다.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남도, 신안군이 후원하는 1004섬 신안 국제시니어바둑대회는 만 50세(1970년생) 이상 시니어 기사들이 참가하는 대회다. 지난해 첫 대회를 개최한 후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당초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9월로 연기됐다.

대회에서는 한국 6명, 중국·일본·대만 각각 3명씩, 후원사 시드 1명 등 총 16명이 맞붙는다.

한국 예선전은 다음달 20~21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유창혁 9단과 서봉수 9단은 랭킹 시드로 본선으로 직행한다.

본선은 오는 9월 18일 신안군 중도면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막을 올린다.

대회는 개인전(16장), 3인 단체전 2개 종목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개인전은 9월 18~22일 매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16장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승 5000만원, 준우승 20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단체전에서는 3명이 한 팀을 이뤄 풀 리그를 진행한다. 국가별로 1팀씩 출전하며, 한국에서는 6명의 선수들 간 협의를 거쳐 3명의 선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각 팀 1~3장은 사전 제출한 상대팀 같은 지명 선수와 대결을 펼친다.

단체전 순위는 팀승수, 개인승수, 1장 승수, 2장 승수, 3장 승수 순으로 결정된다. 우승팀에 1500만원, 준우승팀에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국 중 제한시간은 각각 30분에 30초 조압기 3회다.

한편 지난 대회에서는 일본 왕리청 9단이 개인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초대 우승컵을 안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열린 1004섬 신안 국제시니어바둑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 선수들. 왼쪽부터 란하이펑, 고바이시 고이치, 위빈, 서봉수 9단. 〈한국기원 제공〉

국가대표 5월 11일부터 진천선수촌 재입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 도쿄올림픽 1년 미뤄지면서 잠시 비었던 진천선수촌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돌아간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5월 11일 9개 종목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 재입촌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진천선수촌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여파로 지난해 도쿄올림픽 1년 연기가 결정되면서 휴촌에 들어갔다.

지난달 26~27일에 걸쳐 종목별 선수와 지도자들이 모두 떠난 이후 방역 작업 등이 진행됐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재입촌이 결정됐다.

5월 11일 재입촌 대상은 가라테, 유도, 레슬링, 역도, 펜싱, 배드민턴, 복싱, 탁구, 체조 등 9개 종목 약 360명이다. 훈련 일정이나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2순위 종목이나 인원, 입촌 기간 등은 추후 정해진다.

/연합뉴스

재별 구단주 첼시의 결단

“선수단·임직원 급여 삭감 없다”

“선수들은 재정적으로 구단에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사회는 선수들에게 자선활동 단체 지원에 노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산이 무려 118억달러(약 14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벌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54·러시아)를 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도 선수단은 물론 임직원의 급여를 삭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첼시 구단은 26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에서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이끄는 이사회는 구단 직원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팬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구단은 먼저 임직원들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유지 제도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정리해고나 일시 해고 등의 조치 없이 정규직들에게 임금의 100%를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첼시는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남자 선수들에 대해서도 “무삭감”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베테랑 세터 이효희

한국도로공사 코치로 새출발

실업과 프로에서 22년을 뒀던 여자프로배구의 베테랑 세터 이효희(40)가 한국도로공사 코치로 새롭게 출발한다.

도로공사는 지난 24일 “이효희가 은퇴하고, 지도자로 새로운 길을 걷는다”며 “이효희는 자유계약선수(FA) 교섭 기간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구단 관계자와 만나 향후 진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도로공사 배구단의 코치진에 합류하고 다가오는 2020~2021시즌 중 은퇴식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8년 실업리그 KT&G 배구단에 입단한 이효희는 V리그가 출범한 2005시즌 KT&G에서 주전 세터로 V리그 원년 우승을 이끌었다.

이효희는 흥국생명, IBK기업은행을 거쳐 2014~2015시즌 도로공사로 이적했다.

그는 소속팀 4곳에서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우승 청부사’로 불렸다.

2013~2014시즌에는 세터 최초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로 뽑히기도 했다.

이효희는 “이제는 지도자로 팀이 성과를 내고 후배들이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 후배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서 소통하는 코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오픈 더 도어, 어벤저스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3관	라라랜드, 언어의 정원, 레터스 투 줄리엣
4관	라라랜드
5관	오픈 더 도어, 고양이와 할아버지
9관	1917
7관	씨네캐슬 서치 아웃, 그녀의 비밀정원
8관	씨네캐슬 미드나잇 선, 애프터 웨딩 인 뉴욕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포커스 II - 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